



**언어 영역(A형)**

1. ①	2. ⑤	3. ⑤	4. ③	5. ③
6. ③	7. ③	8. ④	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④	14. ②	15. ③
16. ②	17. ⑤	18. ④	19. ④	20. ①
21. ⑤	22. ③	23. ①	24. ①	25. ③
26. ⑤	27. ④	28. ①	29. ②	30. ②
31. ⑤	32. ③	33. ②	34. ⑤	35. ⑤
36. ③	37. ②	38. ④	39. ⑤	40. ①

**1. 표현의 이해**

**정답 ①**

㉠에는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동사인 ‘모시고’가 쓰였다. 즉, 행위의 주체인 ‘영희’가 아닌, 객체인 ‘할머니’가 높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 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표현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⑤**

㉡에는 컴퓨터 게임을 ‘마법의 힘을 가진 괴물’에 비유하여 ㄱ과 ㄴ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컴퓨터 게임의 중독성이 미치는 범위를, 일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에서 욕구 충족의 시간인 식사 시간, 무의식이 지배하는 꿈꾸는 시간으로 확장시키며 점층적 기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① 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② ㄷ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③ ㄴ과 ㄷ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④ ㄱ과 ㄷ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3. 글쓰기 계획 및 구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II-2-나’는 ‘소비 활성화 정책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수입 원자재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나 ‘사치성 소비재 유통 억제’는 오히려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고쳐 쓰기의 적절성**

**정답 ③**

특정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여 판단한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것인데도, 그것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므로 ㉢은 역접 관계를 나타내 줄

접속 부사(그런데도, 그러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그래서’로 고쳐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5~9] 작품 해제**

**전상국, 「동행」**

형사인 키 큰 사내와 살인자인 억구가 동행이 되어 눈 덮인 산길을 가며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친의 산소를 찾아간다는 억구를 잡아야 할 지 망설이던 키 큰 사내는 결국 억구가 가친의 산소로 가도록 놓아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자살을 막기 위해 담배를 건네며 하루에 한 개씩 피우라고 말한다.

**5. 대응하는 내용의 적절성**

**정답 ③**

키 큰 사내의 과거의 갈등은 토끼를 구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고, 현재의 갈등은 억구를 놓아주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 각각의 갈등은 담을 빙빙 돌기만 했던 행위와 억구를 불러 세운 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 표출 양상이 ‘억구의 가슴속 불룩한 것을 주시함’이라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억구의 가슴속 불룩한 것을 주시했던 것은, ‘날 어떻게 하겠수?’라고 했던 억구의 공격적인 대사가 있었던 점과 키 큰 사내가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 주머니에 껌싸게 손을 넣고 억구를 주시했던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행동할 지 알 수 없는 억구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즉, 키 큰 사내의 내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는 행동이다.

**6. 감상의 심화**

**정답 ③**

형사와 살인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큰 키의 사내가 억구에게 담배를 건네는 행동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정이 드러나고 있지만, 인간 간의 관계 회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7.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의 바로 앞 문장의 ‘이주걱됐죠.’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의 어조를 예상할 수 있다. ‘이죽대다(이주걱대다)’는 밑살

스럽게 지껄이며 빈정거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③의 어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8.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④

큰 키의 사내는 억구에게 담배를 건네며 하루에 한 개씩만 피우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는 인물 간의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음(㉞)을 보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억구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키 큰 사내의 속마음을 보여 주는 것(㉟)으로서, ‘담배’가 이러한 내용을 보여 주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억구를 놓아주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던 큰 키의 사내는 억구의 양복 윗주머니에서 ‘2홉들이 소주병’의 노란 덮개를 보곤 그를 놔주기로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㉞가 키 큰 사내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심리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14] 지문 해제**

**생물체에 내재된 생존 원칙과 환경에의 적응**  
 생명체의 생존 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자연계의 생명체들은 협조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도 고루 관계를 맺으며 짜여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벌레잡이통풀의 예를 통해 자연계의 생물에서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인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효율성과 합목적성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는 것이다.

**10. 내용의 이해를 통한 추리** 정답 ④

중간 부분 이후에서 벌레잡이통풀의 예를 통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은 누가 빚어낸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벌레잡이통풀이 처음부터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거나 번식 능력이 강했을 것이라고 추리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둘째 문단의 ‘많은 사람들은 ~ 창조주에 대한 신앙심을 순식간에 갖게 되기도 한다. ~ 드러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 ②, ⑤ 둘째 문단에서 영양과 사자의 예를 통해 언급한 내용과 상통한다.
- ③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자연계의 생물)은 그 어떤 식으로

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되어 있다.’는 첫째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생물 다양성의 파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11. 정보의 이해와 유사한 상황의 적용** 정답 ④

㉠의 ‘공동 진화’는 자연계의 생물들이 협조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도 고루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어, 한 종이 어떤 속성의 변화를 일으키면 그것이 다른 종에게도 영향을 미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응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④는 막강한 업체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업체들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상황이므로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2. 사이시옷 규정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③

㉡의 ‘먹잇감’은 ‘먹이’와 ‘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 즉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결합되기 전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므로 A~C 중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한다. ㉡은 두 말이 결합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머기감/머긴감]이므로, A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 ‘예삿일’은 ‘예사(例事)’라는 한자어와 ‘일’이라는 순 우리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즉,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므로 D~E 중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한다. ㉢은 두 말이 결합하면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예산닐]이므로, F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13. 구체적 이유의 파악** 정답 ④

㉣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종류가 아주 다른 생물체들인데도 어떤 초월자가 계획에 따라 형상화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형태(유선형)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은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 적응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④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하다.

**14. 관계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②

제시된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의 ‘벌레잡이통풀’과 ㉥의 (벌레잡이통풀 속에서 살아가는) ‘특정의 구더기와 그 밖의

여러 생물'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며 생존해 나가는 관계, 즉 공생 관계를 이루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서로가 이익을 주고 받으며 긴밀한 공생 관계를 이루는 것은 ②의 '개미'와 '진땀물'이다.

[15~19] 해제

(가) 두보, 「추홍」

한시의 전형적인 구성법인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반부에는 가을의 처절한 분위기가 드러나 있으며, 후반부에는 유랑하는 신세로서의 애절한 향수가 드러나 있다.

(나) 이육사, 「자야곡」

시적 화자는 '수만 호 빛이래야 할' 고향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지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른 현실의 고향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오도록 고향을 찾고 있지만, 그 고향은 이미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삭막한(뻘뻘) 땅이 되어 버렸다는 인식 - 실향(失鄕) 의식 - 을 엿볼 수 있다.

(다)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타국을 떠도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 및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에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한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우라지오(이국 땅)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고향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우라지오 바다는 두껍게 얼고 드나드는 배도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작품이다.

15. 시적 화자의 심정 및 태도 이해 정답 ③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신세인 (가)의 시적 화자는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자신의 처지가 그렇지 못하여 서글퍼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시적 화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고향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우라지오 바다가 두껍게 얼어 드나드는 배도 없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는 ③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① (가)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 ② '냉소적'이라는 말은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을 말한다. (나)와 (다)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만 이를 냉소적 인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로 볼 수 없다.

- ⑤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이나 가족을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세계로 보기는 어렵다.

16.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보기>는 늦가을의 산촌 풍경과 함께 유랑의 길을 떠도는 시적 화자의 감회가 어우러져 있는 작품이다. <보기>에는 지향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운 심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단풍나무', '물결', '국화', <보기>의 '첫눈', '강물', '지는 해' 등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의 '외로운 배'와 <보기>의 '외로운 기러기'라는 시구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7. 시적 요소 및 의미 구조의 이해 정답 ⑤

(나)의 시적 화자는 어두운 밤에 어느 항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파이프, 꽃불, 연기) 고향의 현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프에 타고르는 '꽃불'과 '연기' 등은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수만 호 빛'과 '노랑나비'라는 긍정적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나 '무덤'은 절망감과 연결되는 부정적 이미지라는 점에서 ⑤의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18. 창작 과정의 추리 정답 ④

(다)의 경우,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한 작품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① 3~5연에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 있다.
- ② 우라지오 바다가 두껍게 얼어 드나드는 배도 없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2연에서 엿볼 수 있다.
- ⑤ 1연의 '밤이 /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라는 시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함축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보기>는 돌아갈 수 없는 '삭주 구성'에 대한 그리움과 체념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산'은 체념과, 체념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양면성을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다. 즉, '산'은 우뚝 솟아 체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넘어서 저편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밤에 높은 '산'은 임이 있는 저편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배가 항해할 수 없어 고향의 가족에게 갈 수 없는 처지와 관련된 ㉔의 '얼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24] 해제

**시대의 변화와 인문학의 위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글쓴이는 인문학이 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로,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의 전도, 인문학을 경시하는 대학의 풍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문학자들의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

**20. 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 ①

이 글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두하게 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욕망에 따라 이동하는 신유목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동안 정주 문화를 상징해 온 인문학은 새로운 문화 양식이 부상하게 된 신유목 시대의 다양한 요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표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의 '신유목 문화와 인문학의 위기'이다.

**21. 정보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⑤

<보기>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너'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현대의 물질문명을 표상하는 자동차가 지니는 편의성과 속도감에 길들여져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너'를 비판하는 근거를 이 글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①~④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⑤의 '정주 문화를 고집하는 인문학자의 의식'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거리가 멀다.

**22. 내용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③

글쓴이는 '국문학과 영문학의 짝짓기를 강요하여 학제의 기형아를 탄생시킨 이른바 학부제로의 개편'은 인문학의 입지를 좁히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화(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됨'이라는 의미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의 적용**

정답 ①

㉑에서 언급하는 것은 힘의 문화에서 속도 문화에로의 전환, 정신 문화나 내면적 요소보다는 물질 문명의 활용 수단과 전달 방법에 가치를 부여하는 세대와 관련이 깊다. ①은 현대의 물질 문명적 요소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㉑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4. 내용에 어울리는 표현의 적용**

정답 ①

㉒은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추어 다른 요소들도 적절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변화나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나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25~28]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이춘풍전」**

진취적인 아내의 활약으로 방탕한 남편을 개과천선하게 하고 몰락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내용의 고전 소설이다.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이춘풍은 호조에서 2,500냥의 거액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다. 그러나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기고 그녀의 하인 노릇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처는 남장을 하고 새로 부임하는 평양 감사를 따라 평양으로 가서, 회계 비장이 되어 추월을 규탄하여 돈 2,500냥을 되찾고 남편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다.

**25. 내용의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③

이춘풍은 비장 덕에 돈을 받아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상황인데도, 집에 와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 것처럼 아내에게 허세를 부리며 위선에 가득 찬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26.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⑤

㉑~㉔에는 서술자가 이춘풍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반면 ㉕은 상황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㉑~㉔와는 차이가 있다.

**27. 내용의 분석적 이해와 적용**

정답 ④

㉑의 '평양 일'은 남편에게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 말이므로, 평양에서 있었던 남편의 잘못된 행동과 관련이 있

을 것이다. ④의 '아내가 비장이 되어 남편을 찾아온 일'은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남편인 이춘풍이 아직 ④의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④는 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28. 적절한 관용적 표현의 적용** 정답 ①

㉠은 가산을 탕진했던 이춘풍이 비장(아내)의 덕택으로 돈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 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의미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과 어울린다.

㉡은 평양에서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내에게 허세를 부렸던 남편이, 지난날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장(아내)의 지시에 따르면서 행여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들킬까 봐 속으로 민망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 염치도 체면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말인 '죽제비도 낮짝이 있다.'와 어울린다.

**[29~32] 지문 해제**

**지식인이라는 용어의 출현 배경 및 그 올바른 모습**

'드레퓔스 사건'에 대한 공방을 통해 출현한 '지식인'은 자신들의 전문 활동 영역을 넘어 보편적인 가치, 즉 실체적 진실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 운동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된 개념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지식인의 기본 개념을 언급한 후, 사실에 입각해 진실을 밝히려는 실질적인 노력보다 자신의 활동이 만드는 사회적 효과에 매달리며, 사실 자체보다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에 접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개인적 가치나 효용을 따지는 오늘날의 지식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9. 세부 내용의 이해와 확인** 정답 ②

'드레퓔스 파'라는 이름 아래 집결한 옹호자들은 '정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려 했지만 '진실을 위한 연대'라는 겸손한 이름을 채택했다는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 볼 때, ②는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30. 핵심 내용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②

이 글에서는 '지식인'은 실체적 진실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 운동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양인 또는 교육받은 자라면 사회적 지

성의 기능을 자임하고 시대의 고통을 덜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②와 관계가 깊다.

**31. 내용 요소의 관련성 이해와 적용** 정답 ⑤

㉠은 바로 앞에 나타나 있듯이, 사실과 다르게 관념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차별적으로 재단하는 정의의 부당함을 준엄하게 고발하고, 사실에 입각한 참을 가지고서 적진을 돌파하는 지식인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⑤(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이다. 화자는 '떡구름', '쇠 항아리'로 표현된 억압적·부정적 현실과,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는 일반 민중들에게 '닭아라', '찢어라'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라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32.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③

㉡의 '따지다'는 '차근차근 헤아려 검토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③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하다.

- ① 살살이 캐어묻다.
- ②, ④ 살피어 고려하다.
- ⑤ 구체적으로 낱말이 계산하다.

**[33~36] 지문 해제**

**사진 예술의 속성 및 그 속에 담긴 의미**

사진은 사진가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술로 전이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사진의 속성 및 그 속에 내재된 의미와 사진가의 의도 등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33. 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 ②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사진가의 의도와 무관한 외적 정보들이 부각되어 그 의도의 전달을 방해한다면 그 사진은 서툰 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진가는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사진일수록 결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②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4. 전략의 파악**

**정답 ⑤**

이 글에는 대상(사진)의 개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35. 생략된 정보의 추리**

**정답 ⑤**

이 글의 논지를 감안하면, 사진과 관련하여 본다는 행위는 단순히 육안이라는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그 의미를 규정하고 이해하는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피사체의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36. 내용 이해 및 구체적 상황의 적용**

**정답 ③**

글쓴이는 사진가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일상적 사물이 창조적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곳곳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말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 사진은 발로 찍어야 한다는 주장은 발견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37~40] 작품 해제**

**(가)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감투 싸움이 벌어지고,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세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나) 김진섭, 「청빈 예찬」**

부자의 정신적인 빈곤과 빈자의 정신적인 부를 이야기 하면서, 빈자의 정신적인 부가 참된 부라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37. 작품의 개괄적 특성 파악**

**정답 ②**

(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감투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던 친구 G의 예를 통해 현실의 세태를 비난하면서 교훈적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책장수’와 ‘강희자전’의 비유를 통해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허다하지 않은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유 및 빈곤과 관련하여 현실의 세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8. 글쓴이의 태도 이해**

**정답 ④**

(가)에서, 돈을 이용하여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은 허망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39. 구체적 작품에의 적용**

**정답 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가장 잘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은 ⑤이다. 이 시조에는 초야(草野)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 ① 진실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탄
- ② 인내의 미덕
- ③ 늙어 감에 대한 탄식
- ④ 노력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경계

**40. 상황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①**

앞부분의 ‘나’의 웃음은 감투를 쓰러 왔다는 ‘G’의 어이없는 말과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뒷부분의 ‘G’의 웃음은 ‘나’가 꽤 모욕적인 언사로 충고의 말을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즉, ‘G’의 웃음은 ‘나’의 다소 모욕적인 충고의 말을 듣고 무안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색하여 마지못해 나온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